

##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예영의 이름처럼 책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 김승태 대표

예영커뮤니케이션

기독교 출판물 통하여 무명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독교성공에 앞장서 왔던 예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김승태 사장. 그러나 최근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사랑하는 딸 선영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픔을 겪기도 했다. 예영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영의 발자취,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했던 장녀 선영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인터뷰 정리, 양지연

**사정님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수의사였던 아버지(김종용, 서울대 수의대 1회 졸업생)와 수도여자사범대학 1회 졸업생이셨던 어머니(김중희)는 일찍부터 농촌 근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 운동 하셨습니다. 목훈목장이라는 목장도 운영하시면서 어린 시절은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농민운동으로 훈장도 받으셨고 할아버지(김수철)도 감리교 목사로 3.1운동 당시 공주에서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늘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가정 분위기에 성장하였기에 청년시절 기독교문화운동에 심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집안환경의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출판과 관련한 꿈이 있었나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 시집, 잡지 창간호 등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를 한글판으로 출판하여 세상을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1970년대 당시에 유명했던 복싱 프로모터 돈 킹과 같이 사람들을 발굴하여 키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릴 적 꿈을 품고 2000년 초에 '리더스 라이프'라는 잡지를 발간한 적이 있지만 2억 정도의 손실이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발굴하여 키우는 일은 출판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17살 되던 해, 어머니 임종을 혼자 지켜보며 죽음의 공포에 충격을 받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앙드레 말로, 알베르 까뮈, 생텍쥐페리 등의 문헌에 심취하면서 모태신앙을 잃고 기독교신앙에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20대를 보내다가 양서각 출판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후 엠마오 서적의 도매영업 책임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높은 영업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틀 같이 좋은 저자들도 있었지만, 『내가 본 천국』이나 『다가 올 미래를 대비하라』와 같이 세대주의적인 책들이 무비판적으로 대량판매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 출판도 상업화될 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읽으면서 방향하던 신앙이 정리되었습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나와 그것, 즉 물질, 명예, 미모, 실력 등 비인격적인 것으로 모든 관계가 왜곡되는 데 진정한 인간성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려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내면에 숨어 있는 영원한 너, 즉 하나님을 서로에게서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갈모습만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보다 나의 삶을 통하여



아픔을 겪으면서 성인이 된 이후, 거절당하고 약한 사랑을 돕는 사역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물 기절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출판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알려지지 못한 필자들이도 존엄한 사역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응성이 없고 알려지지 못했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믿음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려는 생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커버린 사람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발굴하는 사역에 비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예영의 이름처럼 우리가 정상에 서기보다 그들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끌어주면 우리도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예영 정신이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출판이 거절되는 원고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 중에는 재고로 남기만 하는 것들도 많았고 더군다나 예영은 다른 곳에서 출판이 거절된 원고도 출판물 해 준다는 이야기 가 들면서... 저는 이것이 예영을 칭찬하는 뜻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돈 안 되는 출판물은 예영에서 출판하고, 이익이 될만한 원고는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하시는 저자들도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원고를 출판해 드리기로 결정한 것도 저였고,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던 것도 역시 저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예영 카무니케이션즈가 창립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도 몇 번 넘긴 것으로 있는데 사장님에게 예영은 어떤 곳인가요? 예영은 내 인생의 진부이며, 내 꿈을 펼치는 톨입니다. 이까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영은 돈 안 되는 출판도 다 해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찬란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영영자로서는 무척임한 행동이었 습니다. 신분을 많이 핑기트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



이죠. 영영부진은 사회범죄이고 그리스도인 영영자라면 이런 부분에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에서도 정당하게 가야하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진로에 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무리를 해서라도 성급히 이루어라 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성급함이 사역을 망가트리기도 합니다. 예영은 최근 몇 년간 체무분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원 단위까지도 정확한 회사로 거듭나서 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예영이나 지금이나 무명의 사랑을 발굴하고 돕는 사역은 계속하겠지만 이제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돕기로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말고 개인 일들이 많이 늘 비싼 것으로 압니다만 가정에서는 어떤 아버지였나요?

늘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아버지였어요. 부족한 생산성을 몸으로 때우느라 집에서도 컴퓨터로 일하고 한국기독교출판의 국제교류 청구영향을 맡아오다 보니 좀 험하게 면도 있습니다. 교회 일로도 바빠 아버지로서는 0점입니다. 장녀인 선영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저를 이해하고 잘 따랐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가보다 깊은 대화를 나눴는지가 더 중

영에서 사무실을 제공하여 시작할 수 있었고, 기독교문 화상품권의 디자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영연구원, 이슬람연구소 등 다양한 기독교단체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 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양승훈 박사님이 출국하시면서 몇 년 간은 CUP를 위탁경영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출판해 드림으로써 사랑을 세우는 일이 예영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보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세우려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영에는 다양한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출판사들이 출판물 꺼려졌기에 끼끼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판한 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저는 부모를 일찍 잃어(9살 때 아버지, 17살 때 어머니) 어린 나이에 스스로 인생을 헤쳐가야 했습니다. 아파도 도와달라 할 수 없었고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엠마오를 그만두고 주전양선교단에 기획 실장으로 들어가면서 문화선교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었고 찬양캠프 등을 개최하면서 문화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살려 1991년 4월, 예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 복음과 상황, 낮은 울타리 등이 창간되는 등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매체가 생겨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출판사의 이름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도 음을 주셨던 사업들을 소개해 주세요.

한국 라브리리의 성인경 목사님이 한국에서 라브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황성주 박사님과 함께 라브리 사역이 정착하도록 돕던 기억이 납니다. 라브리와 관련된 다양한 출판물도 있었고, 기독교출판협의회 <기독교출판소> 창간호도 예영에서 편집의 틀을 집었습니다. IVP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도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예

1. 선생이의 생전모습
2. 한신대 입학식에서
3. 태안 7일유치시킨 당시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벌였던 선생이
4. 연극반에서 활동하던 모습
5. 독일여행 중에
6. 인상깊게 부었던 로텐베르크의 크리스마스상
7.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7. 독일 카이제베르크 슈바이처 박물관에서



요하다고 느끼니다. 선생이 보내면서 블로그나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를 살펴보니 친구들과는 평소 가족과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더군요. 아버지로서 함께 했던 시간은 많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얼마나 했던가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 갑작스레 결을 떠난 선생이에 관하여 조심스레 여쭙게 됩니다. 아버지를 도와 출판사 일도 많이 했던 것으로 있는데 사장님께 선생이는 어떤 딸이었나요?

선생이는 호기심이 많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였어요. 제가 하는 사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기독교문화도 어렵게 배우며 많이 접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성격이어서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나니아 연대기』 등의 경우는 책을 여러 번 읽어 내용을 꿰뚫고, 영화감독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뽑아 영상화하는지, 원작에 얼마나 가까운지, 원작자의 의도를 감독이 바르게 해석했는지 등 비평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연극반으로 활동하면서 연기부터 무대장치까지 연극의 모든 분야를 섭렵하며 정열을 쏟기도 했어요. 제가 반대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문에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함께 독일여행

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연극에만 집중하던 생각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저와 관계회복도 많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로 예영의 출판편집을 도왔는데 일을 빨리 배우면서도 맡겨진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탁월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해결하는데 포미름 느끼면 아이였어요. 그 때문에 너무 일을 많이 맡겨 건강을 해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장의감이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특히 문화, 예술쪽으로 재능이 탁월했기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너무 일찍 떠난 것이 안타깝고 마음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리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어쭙봐도 될까요?**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빨리 잊으라고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선생이를 생각할 때 여기저기 흘러져 있는 삶의 흔적들을 찾아서 정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이의 블로그나 싸이, 카카오톡 등에 친구들과 주고 받았던 대화와 글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의 생전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뮤지컬에 심취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뮤지컬 시나리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으로, 육신적인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태어나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너무 일찍 떠나버린 것이 애석하여 대신 꽃을 피워주고자 합니다. 또 함께했던 독일여행 중 로텐베르크에서 크리스마스 샴에수란쟁을 축하하는 동화같은 샴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크리스마스샴을 만들어 크리스마스용품과 책, 카드가 함께가는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해 질 것 같아요. 슬픔에 빠져있기도 다는 선생이의 이미지와 생명력을 문학이나 문화 등 다른 쪽으로 크로스오버 시킬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지난 연초에 제가 섬기는 기록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 한국교회 회개를 위한 연속설교를 해 보시면 어떠시겠냐고 의논을 드렸었는데 목사님도 쾌히 승낙하셔서 10주간 연속하여 말씀을 전하였고, 이 내용을 편집하며 6월 초에 『주어!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됩니다. 이런 시기에 선생이 묻게 생겨서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사탄이 꾀질해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는 생각에 더욱 마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회개를 외치는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깨닫게되어야 한다는 경각심 갖고,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꼭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소중한 선생이를 잃었지만 그것으로 소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제대로 하기 위한 쓰라린 경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서 부분에서 아시아 스탠다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출판은 영어권 다음으로 세계에서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복음화율은 높음에 비해 조직적이고 조직적인 진력이 없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영적지도력을 잃어지기에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모든 영역의 기본 텍스트들을 영어로 출판하여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출판물을 해외로 내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자 합니다.